

다산포럼

과부와 싱글맘



박원재
울곡진흥원장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의외의 말이 튀어나왔다. 맥락을 모르고 듣는다면, 법정에서 온정적인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판사에게 전하는 감사의 인사로나 여겨질 법하다. 하지만 이 말은 종합편성 채널 한 곳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래 경연대회 최종 우승자의 입에서 나온 우승 소감이다.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면, 이 말 속에는 그동안 안으로만 삭여 왔음직한 우승자의 어떤 심정이 배어 있을 것이다. 생각이 여기저기 미치자, 여섯 살 된 아이 하나를 혼자 키우는 30대 싱글맘이라고 했던 우승자의 프로필이 떠올랐다.

한부모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시선은 이른바 ‘정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아직도 ‘정상적’

이지 못하다. 특히 그중에서도 싱글맘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더 굵어 있다. ‘편부 슬하’란 말은 없어도 편모슬하라는 말은 있다는 사실이 이 편견이 얼마나 뿌리깊은가를 보여 준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소리를 들으면, 여자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지레짐작을 한다든가 까닭 없이 쉬이보려 한다. 이런 주위의 낯선 시선들 속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려니 남모를 어려움과 설움도 많았을 것이다. 경연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을 때 방송에서 싱글맘이라는 게 공개되면 자신은 괜찮지만 혹시나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점이 제일 망설여졌다.는, 우승 후 다른 지면에서 실린 우승자의 인터뷰에서도 그런 굵은 시선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읽혔다.

인정(仁政)을 최고의 정치로 여겼던 유교 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강조하였다. 이 때문에 환과고독(鰥寡孤獨), 즉 홀아비(鰥)와 과부(寡)와 고아(孤)와 자식이 없는 노인(獨)에 대한 구휼은 언제나 정치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동양적 이상사회의 청사진으로 많이 일컬어지는 ‘예기(禮記)의 대동사회론에도 이 문제에 대

한 언급이 들어 있고, 맹자 또한 이들에 대한 보호가 왕도정치의 시급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유교 국가를 표방한 조선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다. 태조 이성계가 즉위 교서에서 이들에 대한 구휼이 왕도정치 구현의 관건적인 과제임을 천명하고 있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물론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유교의 이런 생각에는 ‘정상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가로놓여 있다. 사람은 누구나 혼기가 차면 배우자를 만나 혼인을 하고 자식을 낳아 키우고 늙도록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 관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환과고독은 삶의 정상성에서 벗어난, 이를테면 ‘비정상’이고 따라서 극복되거나 해소되어야 하는 문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통 유교 사회는 늘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들 소수자들에게 대한 국가의 배려와 보살핌을 통치자에게 요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전통사회에서나 있었던 케케묵은 편견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를 구시대적이라 할 정도로 간단하게 치부해 버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는 것일까? 환과고독 가운데 ‘과’ (寡)에 해당하는 오늘날의 싱글맘들은 예제의 ‘과부들’에

비해 더 낯은 사회적 지위와 배려를 받고 있는 걸까?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우승 소감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지구는 만물이면서서 ‘돌도 많으니 하나만 낱아 알뜰살뜰 살라’더니 왜 어느 날부터 ‘낱을수록 희망 가득하고 기를수록 행복 가득’이라고 하는지 그 심오한 곡절은 잘 모르겠지만, 나라가 결혼과 출산을 권장하려면 적어도 인정(仁政)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철학은 가지고 이야기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러지는 않고 인구절벽이 어떻네, 이런 출산율이라면 300년 후에는 나라가 없어지네 하며 호들갑만 떨어서야 되겠는가? 아니 도대체 결혼을 해라 말이라, 아이를 낳아라 말이라 할 권리가 나라에 있는 것일까?

이런 문제는 피부에 와 닿는 부분부터 하나씩 풀어 나가는 것이 순리이다. 적어도 노래 경연에서 우승한 싱글맘의 입에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러지 않고 우물에서 솥냄 찾는 식이어서는 인구증산 정책은 언제나 연무구어일 것이다. 나라도 염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청춘 특·특

개화(開化)를 위한 시간, 방학



박준영
동신대 신재생에너지전공 2학년

1년 전 대학 입학을 앞둔 예비 신입생 때, 갑자기 내게 생긴 자유가 좋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다.

고등학교 때와 뭔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도 그때였다. 그런 내게 대학생이 되고 나서 제일 좋은 점을 꼽으라면 자유로운 복장, 고등학생 때 갖기 힘들었던 여유로운 등을 고를 수 있지만 무엇보다 긴 방학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꽃도 활짝 핀 뒤, 다음에 다시 꽃 필을 위해 잠시 동면이라는 쉬는 시간을 갖듯이 대학생도 마찬가지로 다음 학기를 위해 방학이라는 쉬는 시간을 갖는다.

방학이 길어진 건 좋지만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건 원치 않았다.

그러서 ‘무려 두 달이 넘는 겨울 방학을 어떻게 해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학교에서 모집하는 베트남 동계 해외 봉사 활동을 신청했다. 봉사 활동을 가서 스펙을 쌓아 보자는 생각도 있었고, 방학 동안 할 것도 없으니 이걸 기회 삼아 해외여행을 가보자는 마음도 있었다.

활동 당일이 되자 설렘 반 걱정 반이었다. ‘베트남은 처음인데 팀원들과의 호흡까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앞섰다. 그럴 때 일수록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일주일의 한 달처럼 살고 후회 없는 봉사 활동을 하자’ ‘좋은 기억을 안겨 주고 돌아오자’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런 걱정과는 달리 막상 가보니 무난하게 모든 활동을 잘 진행했고 베트남 친구들, 그리고 같이 간 봉사 단원들까지 서로 친해지게 됐다.

또 6박 7일 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봉사 활동 기간 많은 점들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다.

특히 베트남 친구들의 순수한 웃음과 한국에 대한 애정을 보면서 봉사 활동의 참 의미를 느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

더라도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경험을 하게 됐다. 실제로 표정이나 행동으로도 충분히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고 느낄 수 있었다. 봉사활동의 내용 자체도 서로 교감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었다.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한 복주머니·연·민화부채·전통 탈 만들기 등이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됐고 K-POP을 함께 노래하고 춤을 배우며 소통하는 시간도 있었다.

봉사 활동은 단순히 내가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봉사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탐방에서도 많은 점을 배웠다. 특히 종교, 사상, 역사 등 다양한 문화 탐방의 시간은 베트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봉사 활동이었지만 역으로 베트남의 문화와 풍습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다.

이번 해외 봉사 활동을 통해 봉사의 참 의미와 베트남의 문화와 역사를 알게 됐지만 무엇보다 세상을 보는 시각,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한층 더 성숙해졌음을 스스로 느꼈다. 익숙하고 편안한 곳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얻는 새로운 시각은 더 없이 값진 것이었다. 이번 방학에 나처럼 해외로 나가 봉사를 하거나 어학 연수를 하면서 스펙을 쌓은 대학생도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으거나 자격증을 위해 공부하는 대학생, 미래를 위해 바쁘게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생 등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할 것이다.

방학은 학기 중에 쌓인 피로를 달아내기 위한 시간이지만 두 달이 넘는 긴 기간 동안 마냥 쉬기만 한다면 무의미한 시간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하지만 언제나 두려운 건 자신의 생각일 뿐 현실은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작하기 전에는 힘들 것 같지만 막상 부딪쳐 보면 생각보다 쉬운 일이고, 하기 싫었지만 도전하고 나면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방학 때의 여러 활동에 도전하면서 보내 보자. 의미 있게 방학을 보내고 나면 더 활기찬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기 고

참여하는 유권자가 주인이다



이겨라
변호사·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곧 국가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은 현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뽑아 그들에게 정치를 맡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선거는 바로 이러한 대표자를 뽑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이

러한 의미에서 선거를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가오는 4월 15일 총선은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 연령 하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시행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인 ‘사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제도의 시행으로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낮은 경우 최악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나마 나은 차액의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일이 줄어들어 유권자가 진정으로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

또한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18세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로 낮아졌다.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2005년 20세에서 19세로 하향된 이래로 15년 만에 18세로 하향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마지막으로 18세 선거권을 인정한 나라가 되었다. 이와 같은 선거권 연령의 하향으로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8세 유권자 53만 7000여 명(2001년 4월 17일 ~2002년 4월 16일 출생자)이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선거권 등 참정권의 행사는 학생 유권자들이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학생 유권자들이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교육청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권의 확대에 따른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선거 운동의 자유 보장, 수업권과 학습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학생 유권자나 교직원들이 공

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거듭 강조하면,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선거는 유권자의 참된 주권 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나 하나쯤이야 투표를 하지 않아도 돼” “나는 정치가 싫어” “나 하나 투표하지 않는다고 해서 설마 당선자가 바뀌겠어?”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선거권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유권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할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일을 앞둔 이 시점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남긴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는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가오는 4월 15일 나는 과연 주인이 될 것인가, 손님이 될 것인가. 선택은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

社說

돌아오는 중국인 유학생 따듯이 보듬자

중국인 유학생들이 개학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대거 입국하게 되면서 광주 지역 대학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모를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대학들에 따르면 광주 지역 11개 대학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은 2551명으로, 이 가운데 2051명은 방학을 맞아 중국에 머물고 있다. 대학별로는 호남대가 962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대 826명, 조선대 375명, 남부대 149명, 광주대 105명 등의 순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개강을 3월 16일로 연기했지만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새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 빠르면 이번 주부터 국내로 들어온다. 이에 대학들은 최장 2주 동안 이들을 기숙사에 머무르게 하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수 하나씩 풀어 나가는 것이 순리이다. 적어도 노래 경연에서 우승한 싱글맘의 입에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러지 않고 우물에서 솥냄 찾는 식이어서는 인구증산 정책은 언제나 연무구어일 것이다. 나라도 염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도 마련 중이다.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호남대는 오늘부터 이틀간 전세버스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숙사 건물인 면화관까지 학생 150여 명을 수송한다. 대학들은 특히 ‘격리 기간’ 대신 ‘안정화 기간’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등, 단어 하나 말 한마디에도 차별적·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대단히 우려 깊을 조지다.

중국이 코로나의 진원지라고 해서 그곳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에도 국내 중국 유학생만큼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있다. 철저한 검역과 방역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들을 따뜻하게 껴안고 배려해야 한다.

지자체와 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유학생들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는 믿음을 심어 주고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제 ‘인권 도시’ 광주의 모습 아니겠는가.

음식물쓰레기 지금보다 확 줄여야 한다

광주 지역 음식물쓰레기가 다시 늘고 있다. 음식점 등 사업장 배출량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4년간(2015~2018년) 광주 지역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2015년 537톤에서 2016년 526톤, 2017년 501톤으로 줄더니 지난 2018년에는 509톤으로 다시 늘어난 것이다.

특히 단독·소형 음식점의 경우 하루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가 142.4톤(2015년)에서 145.9톤(2018년)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다량 배출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도 하루 70.8톤(2017년)에서 78.0톤(2018년)으로 많아졌다. 이에 비해 아파트의 경우 발생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광주 지역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 종량기(RFID)를 보급, 감량을 유도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독주택과 음식점의 쓰레기가 늘고 있는 만큼 쓰레기 감축을 위한 성숙

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광주 시내 5개 자치구가 3월부터 단독주택의 경우 1당 수수료를 46원~70원으로 올리고, 공동주택은 63원~95원, 음식점 70원~110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음식물쓰레기 감축과 관련 제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밥 반공기 주문제도 눈길을 끈다. 식당에서 밥을 다 먹지 않고 남기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고객이 원하면 반공기만 제공하는 제도다. 반공기 주문제 시범 운영 업소에는 상수도 사용료 감면 또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과 시설 개선 자금 우선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한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유엔에 따르면 버려지거나 유통 과정에서 손실된 음식으로 발생한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한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지구를 살리는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無等鼓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자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를 고소했다는 취하했지만 계속해서 군육을 치르고 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어느 일간신문에 기고한 '민주당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여권이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임 교수의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고소했지만, 집권 여당이 정치적 편협함을 넘어 반민주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를 철회했다.

하지만 고소 취하 과정에서 사족(蛇足)을 달아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임 교수가 안철수 전 의원의 싱크 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진정한 사과보다는 고발의 당위성에 은근히 방점을 두는 정치적 '뒤갈'을 보인 것이다.

그러자 당사자인 임 교수는 "민주당이 과거 (내) 이력을 거론하며 고소를 취한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불편한 심경과 함께 공식

적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친문(친 문재인) 성향 인사들이 선관위에 임 교수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에 나섰고 이에 질세라 보수 성향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해한 민주당 대표를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야권도 일제히 집중 성토에 나서면서 임 교수의 칼럼 파동은 총선 이슈로까지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말을 아끼고 있다. 고소 취하에 유감 표명이 담겼으니 며칠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라는 계산도 보인다. 하지만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누구의 잘못을 떠나 여당의 진정성이 걸려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절대 사과를 변명으로 망치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이제 이해한 대표가 나설 때다. 변명과 사족을 뺀 진심 어린 사과, 이것이 리더의 덕목이고 집권 여당의 자세다.

/임동욱 선임기자·서울취재본부장 tuim@

사과의 방법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담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